

## 종로소방서, 쪽방촌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 큰 피해 막아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1 [11:00]



종로소방서(서장 권혁민)는 지난 8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한 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주택 2층에서 발생했다. 화재 초기 상층 거주자와 주변 주민이 잠겨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소방서에서 보급한 소화기와 주변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 종로소방서, 오토바이 화재 보이는 소화기로 막아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9 [16:00]



종로소방서(서장 권혁민)는 지난 27일 오전 7시 종로구 종로 335-1 근처 도로에서 연료누유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 근처에 있던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종로소방서(서장 권혁민)는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2층 상황실에서 현장대응단 직원 대상으로 현장활동 회의 실시 중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오후 4시께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지붕에서 전기적 요인(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인근 상가 주민이 근처의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 더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사시 최초 신고자와 직접적인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119 신고, 소화기 사용·대피 유도가 더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mailto:119news@fpn119.co.kr)

## 광진소방서, 보이는 소화기 사용 화재 초기 진압 성공

119뉴스팀 | 입력 : 2019/04/04 [15:00]



광진소방서(서장 이영우)는 지난 3일 오후 7시 24분 중곡치안센터 소속 김모 순경은 관내 순찰 중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서 화염을 발견,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 자칫 큰 화재로 확대될 시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한 소방차 통행곤란지역과 노후아파트 등에 지난 2016년부터 보이는 소화기함을 지속 설치해 주민 누구나 유사시 사용함으로써 초동 대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왔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 광진소방서, 가정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 성공!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0 [16:00]



광진소방서(서장 이영우)는 10일 낮 12시 화양동 음식점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음식점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에서 발생, 실외기·전선 배관 등이 소손됐으나 관계자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 피해를 막았다.

이영우 서장은 “업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초기 진압한 모범적인 사례다”며 “혹시라도 화재 발견이 늦어지면 무리하게 진압하지 말고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주위에 알려 신고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향상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 보급을 시행했다. 119안전센터에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광진구의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 용산소방서, 후암동 다세대주택 화재 진압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1 [13:00]



용산소방서(서장 김형철)는 11일 오전 3시 용산구 후암동의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반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건물 인근에 세우진 차량 일부까지 손상시켰다. 화재 초기 인근 주민에 의해 골목에 비치된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화세가 강해 여의치 않아 소방서 도착 후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 용산소방서, 용문시장 음식점 화재... 의소대 활약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5 [16:30]



용산소방서(서장 김형철) 지난 24일 오후 8시 40분 용산구 용문동 용문시장 음식점에서 불이 나 긴급출동했다고 밝혔다.



불이 나자 인근에 있던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은를 대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불은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 동대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오토바이 화재 초기 소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5 (11:00)



▲ 심하게ไหม여 추락하는 중에 탄 오토바이가 현장에 놓여 있다.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현)는 최근 장안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화재 시 주민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 진압에 성공한 미담사례를 알렸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시 55분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빌라 1층 주차장 내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해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초기 진압을 시행한 주민은 "이번 화재처럼 건물 1층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화재 사례들을 뉴스로 많이 접했는데, 대부분 큰 화재로 번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다행히 오늘 초기소화를 성공할 수 있어 큰볼트 이어가지 않았기에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앞으로도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mailto: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대문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로 전기 화재 초기 소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6 [14:07]



▲ 침구 업체인 김치냉장고와 초기 소화로 사용된 소화기가 놓여 있다.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현)는 최근 청량리동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시 주민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 진압에 성공한 미담사례를 알렸다.

지난 23일 오후 4시 44분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주택 1층 마당에 설치돼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김치냉장고 뒷면 하단부에 설치된 전기콘센트가 과열되면서 먼지 등에 착화·발화했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화재 확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초기 진압을 한 거주자는 "필소 전기 화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황했지만 다행히 주변에 마련해둔 소화기가 눈에 띄어 초기 소화를 할 수 있었다"며 "알으려는 전기 화재 예방법을 잘 알아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mailto: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발재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대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방 화재 초기 소화

119뉴스센터 / 번호 : 0204-8404(11900)



▲주방에서 화재 발생 후 소화기 사용, 화재로 확대되지 않음.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현)는 최근 장안동에서 발생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주방 화재 시 거주자가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 진압에 성공한 피당사례를 알렸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5분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주택 1층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냄비가 과열되면서 불과 연기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거주자가 이를 발견 후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화재 확대를 막아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소화기 사용에 성공한 주택용소방시설 모습.

거주자는 "평소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행히 소화기로 초기 소화에 의해 목숨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어떤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119뉴스센터 119news@d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청/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진압

119뉴스팀 | 입력 : 2019/04/30 [11:00]



▲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한 장안동 주택 현장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31분 동대문구 장안동 주택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 중 음식물이 탄화되고 발생한 불꽃이 가연물과 집기류에 옮겨붙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화재 확대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곤란했을 것이다"며 "평소 생활하는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달라"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mailto: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례 12〉 성북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큰 피해 막아!

### 성북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피해 막아!

3월 27일 10시 35분경 성북구 장위동 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북소방서(서장 윤희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5분경 성북구 장위동 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화재는 주택 거주자(남, 84)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거실에 있던 거주자에게 화재 발생을 알려 큰 화재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는 주택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청 공기 순환을 제지 할 향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예정 이다.

## 은평소방서, 갈현동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막아

119뉴스팀 | 입력 : 2019/04/04 [16:30]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6분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대형 화재·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 자동으로 경보음(85dB)이 울려 사람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경보설비다.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거주자는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주방을 비운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연기가 발생했다. 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그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신고 접수 즉시 소방차량 15대와 소방대원 51명을 동원해 신속히 출동했다. 구조대는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 인명 검색 중 거주자를 화장실에서 발견·구조해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응주 화재조사관은 “감지기가 작동해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강남소방서, 삼성동 화재 시민이 초기 진압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9 [16:00]



강남소방서(서장 김윤섭)는 19일 오전 삼성동 주택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건물 관계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주택 외부에 적치된 폐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를 목격한 건물 관계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한 후 주택용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시민이 초기에 예방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의 적절한 대처는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초기 진압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jn119.co.kr](mailto:119news@fj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GORDENEWS. The article title is "서초소방서, 생명 알림벨 '단독 경보형 감지기' 중요성 알려" (Seochosobangseo, Seomang All-Alarm Bell 'Single Alarm Type Detector' Importance). The article text states that on March 22nd at 6 AM, a fire occurred in a Seochogu apartment building. Thanks to the installation of single alarm type detectors, the fire was quickly extinguished, preventing a major disaster. The article also mentions that the fire was caused by a gas leak while cooking, and that the detectors were installed in the kitchen. The article is attributed to an anonymous reporter (인증원 기자) and is dated 2019.04.02 13:15:40. There is a photo of firefighters at the scene and a small advertisement for a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

▲ 사진=서초소방서

(서울=국제뉴스) 인증원 기자 = 서초소방서는 “지난 3월 22일 아침 6시경 서초구 반포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도움으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다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한 화재였다. 주방 천장에 설치해두었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리면서 거주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바로 신고했고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공부법 1위  
영단어 1위  
영문법 1위  
성적 안오르면  
전액 환불  
공신닷컴 바로가기  
(주)스윙 파워스윙용소기



## 서초소방서, 화재 초기 보이는 소화기 적극 활용 권장

119뉴스팀 | 입력 : 2019/04/01 [14:00]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 확산을 막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건물 지하 2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시작됐다. 다행히 관계인이 인근 보이는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 진화에 나섰다 뒤이어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다.



Fire Prevention News

뉴스 | 산업·기업 | 오피니언 | 사람&사람 | 119NEWS | 소방재용 | 프리미엄정보 | 신문지면보기 | 포토&영상

Home 119 | 소방본부 | 소방서 | 119학교

**FLIR K2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제품 문의

**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초기 대처**

119뉴스팀 | 입력 : 2015/04/25 [12:00]

📄 📧 🐦 📘 📺 📺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지난 22일 서초구 서초동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단독형 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나온 신고자에 의해 바로 신고돼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화재는 빌라 주방의 싱크대 밑에 설치된 콘센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돼 주방 싱크대 일부만 소실되는 피해에 그쳤다.



## 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진압·인명 피해 막아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5 [17:17]



마포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지난 23일 오전 1시 망원동 소재 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집주인이 소화기로 진압해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연립주택 복도에서 원인 미상의 이유로 재활용품 등 가연물에 연소해 발생했다. 집주인은 소방서가 도착하기 전 평소 집에 비치해둔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이 난 주택은 지난해 소방서에서 소화기와 주택 화재경보기를 보급한 화재취약계층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 구로소방서, 용감한 시민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119뉴스팀 기자 | 김복 - 2019년 04월 11일 (18:00)



구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지난달 30일 금천구 시골동 소재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영업 중이던 치킨 집에서 가열 중인 튀김가마의 불꽃이 가마 내부 기름때에 옮겨붙어 발생했다. 다행히 식당 주인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해 불길을 잡았다.

김다행 예방담당은 "일상 속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즉시 사용하길 바란다"며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9뉴스팀 [119news@fpr119.co.kr](mailto:119news@fpr119.co.kr)

## 구로소방서, 시민이 소화기로 화재 초기 진화

119뉴스팀 119뉴스팀 119뉴스팀 | 등록 : 2019/04/09 (11:00)



구로소방서(서장 김병호)는 지난달 23일 구로구 고척동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불은 빌라 301호 거주자가 주방 인덕션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외출한 사이 냄비와 주변 물건 등이 가열되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이 연기를 보고 집안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다.

김다현 예방담당은 "요즘같이 건조한 봄계절의 날씨엔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화기를 이용해 재난을 막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on119.co.kr](mailto:119news@fon119.co.kr)

## 구로소방서, 컨테이너 화재 시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

119뉴스팀 119 | 입력: 2019/04/09 (13:49)



구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지난 8일 구로구 구로동 소재 컨테이너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연구 중이던 컨테이너 실험실에서 멀티본센트 과전류로 인해 발생했다. 다행히 관계인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화재 확대를 막았다.

김다혁 예방담당은 "일상 속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즉시 사용하길 바란다"며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9뉴스팀 [119news@fpr119.co.kr](mailto:119news@fpr119.co.kr)

## 노원소방서, 건물 옥상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6 [16:00]



노원소방서(서장 백남훈)는 지난 23일 오후 3시 노원구 공릉동 빌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옥상 적치물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관계자가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화재 확대를 막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잘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면 소방차 몇 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평소 우리 주변에 설치돼 있는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화재 발생 시 적극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인명 피해 최소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1 [12:00]



관악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지난 6일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 전기레인지가 과열되면서 상부 가연물에 착화·발화됐다.

상부 가연물에 연소가 진행되던 중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 이를 들은 인근 주민이 신속히 119에 신고 후 대피해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막을 수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mailto:119news@fpn119.co.kr)

### 관악소방서, 남현동 화재 '보이는 소화기'로 진압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2 [12:00]



관악소방서(서장 김명환)는 지난 7일 오전 3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건물 분리수거장에 누런가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재활용쓰레기통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당시 건물 뒷면에서 나오는 연기를 포격한 건물 관계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 복에 설치돼 있던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악구 내에 숙박업소, 학방, 전통시장, 소방차통행 곤란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 840개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이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진압에 많은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on119.co.kr](mailto:119news@fon119.co.kr)





2019-04-26 14:00

관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에 발빠른 대피

2019년 4월 26일 14:00

119뉴스



관악소방서서실 길옆초는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경 소파 구역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듣고 거주자가 신속히 119에 신고해 화재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다.

다행 발은 주택 화재 발생에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을 불려주고 거주자가 집에 든 세미 음식물이 단 불되면서 발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었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져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 화재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화재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사별소화기·유지 및 안전관리회 관할 건물에 따라 의무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중주택 중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층별로 소화기별, 주택은 실(전실·복도·코리도 등)마다 다중주택은 감지기(1대)를 설치해야 한다.



송파소방서  
산업체 위탁교육협정을 통한 **매학기 40% 학비감면혜택** 부여  
· 2005년 최초학과설립 · 국내소방각분야 최다동문배출

뉴스 | **산업·기업** | 오피니언 | 사람&사람 | 119NEWS | 소방채용 | 프리미엄정보 | 신문지면보기 | 포토&영상  
산업News | 신기술·신제품 | 기업탐방 | 기획·특집 | 박람회



## 송파소방서, 건물 옥상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4/01 [13:00]



송파소방서(서장 이정희)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민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삼전동 소재 건물 옥상에서 버려진 담뱃불로 인해 시작됐다.

것을 보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옥상 인조 잔디, 전선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mailto:119news@fpn119.co.kr)

# <사례 27> 송파소방서, 뭐라도 하려고 했을뿐인데 학원가다 큰불 막은 고교생들(소화기 5대 빌려 식당화재 초기진압)



## 최신기사 "뭐라도 하려고 했을 뿐인데" 학원가다 큰불 막은 고교생들

충고시간 | 2019-04-07 17:38

편의점서 간식 사다가 소화기 5대 빌려 식당 화재 초기진압  
소방 "그대로 뒀으면 큰불 났을 것"



불 끄는 모습 재현하는 학생들  
[송파소방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4월의 첫 주말인 7일 점심 무렵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난 불을 지니가던 고등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 진화해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송파구 방이동의 한 식당 뒤편 환풍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시작됐다. 불길은 곧바로 바로 옆 천막과 에어컨 실외기로 옮겨붙었다.

아직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 이 불을 끄기 시작한 건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이었다.

### ※ 40세 이상 '임플란트' 희망자 모집

당시 학원을 마치고 다른 학원에 가기 전 인근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던 방상고등학교 1학년 김준우 군과 송채호(이상 16) 군은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갔다.



송채호(왼쪽) 군과 김준우 군  
[송파소방서 제공]

방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서 불은 오후 2시26분에 완전히 꺼졌다.

김 군은 "편의점에 여편 남자들이 들어와 불이 났다면서 급하게 물을 사 가더라"며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따라갔다. 니 실외기 두 대가 불에 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군은 "처음에는 불이 크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고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일단 최대한 번지는 걸 막아보고자 가까운 곳에서 소화기를 빌려와 뿌렸다"고 말했다.

송 군은 "불이 났다가에 조금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된 학원과, 편의점 샌드위치 가게, 핫도그 가게에서 소화기를 빌려다가 불을 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저상 실외기 뒤쪽의 불을 잡기가 힘들어서 일단 번지는 것만 막자는 생각으로 소화액을 뿌렸다"며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전에 소화기 사용법을 수련회 등에서 배웠고, 평소 아버지께서 불이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주셔서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생은 "다지지는 않았다"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소방당국도 자칫 큰불로 번졌을 것이라며 이들 학생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나중에 보니 학생 둘이서 소화기 5대를 빌려다가 썼더라"며 "그대로 뒀으면 큰불로 이어졌을 텐데 장하게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The banner features the FPN Daily logo on the left. A yellow box on the right contains the text '충실사이버대학교 최고의 교수진 구성으로 방재 전문가 양성' and a university seal. Below the logo is a red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뉴스 | 산업·기업 | 오피니언 | 사람&사람 | 119NEWS | 소방채용 | 프리미엄정보 | 신문지면보기 | 포토&영상'. Underneath is a white bar with 'Hot! 119 | 소방본부 | 소방서 | 119기고'. The main advertisement is for the 'FLIR K2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FLIR K2 Fire Department Thermal Imaging Camera), showing the device and a '제품 문의' (Product Inquiry) b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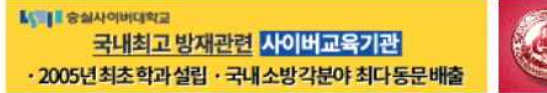
## 송파소방서, 아파트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4/08 [11:00]



송파소방서(서장 이정희)는 지난 7일 오후 1시 55분 서울 송파구 마천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마천동 소재 아파트 상층부에서 버려진 담뱃불로 인해 시작됐다. 다행히 아파트 관계자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 송파소방서, 치과 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6 [14:00]



송파소방서(서장 이정희)는 지난 25일 오후 3시 28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치과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민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서 발생했다. 최초 불을 발견한 치과 관계자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FLIR K2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제품 문의



**양천소방서, 버스서 화재... 소화기 사용 자체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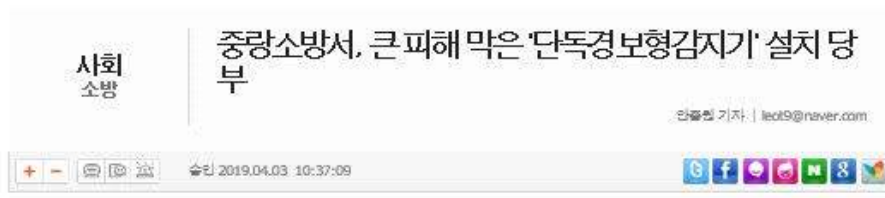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5 [11:00]



양천소방서(서장 김재학)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신월동 광영고등학교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버스가 주행 중 엔진과열로 인해 엔진룸 부분에서 발생했다.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연기를 목격,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았다.

노민영 예방담당은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자칫 엔진 폭발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위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사진=중앙일보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중랑소방서는 7일 오전 4시 26분 망우동 주택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내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주택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거주자가 잠시 잠이 든 사이 과열로 음식물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단독형 감지기 작동으로 불이 난 사실을 거주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가스불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22천원으로 소방서는 밝혔다.

FLIR K2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제품 문의



FLIR

동작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큰불 막아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5 15:00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1일 오전 8시 동작구 관내 빌라에서 불이 났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이 작동해 큰 화재로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전기레인지 위에 가연물용 적치한 상태에서 전기레인지의 전원이 연가된 것을 무르고 의불한 사이 발생했다.

최초 신고가 늦었을 경우 화염이 전정을 타고 내부 전체로 확대될 뻔 했지만 내부 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이웃들이 빠르게 신고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소방서 화재조사주임은 "빠른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며 "평소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빠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소리를 내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감지기로 주택용 건물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 동작소방서, 보이는 소화기 활용 화재피해 감소

119뉴스팀 (주) · 입력 : 20190417 (수요일)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익)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1분 관내 화재가 발생했으나 보이는 소화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누군가 피우다 버린 담배꽂이가 건물 앞 옥외에 설치된 중앙박스에 떨어져 발생했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연소 확대되던 중 다행히 신고자가 보이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최초 신고가 늦었음 경우 화염이 자동차 전체로 연소 확대될 수 있었으나 패마빌 근처에 설치돼 있던 보이는 소화기를 발견한 신고자가 빠르게 초기 진화한 것이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빠르게 화재가 진압돼 인명·재산 피해가 현저히 줄여줄 수 있었다.



소방서 화재조사주임은 "신고자의 빠른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방차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골목 등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안전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9뉴스팀의 다른기사보기



## 동작소방서, 소화기 사용 초기 진화 사례 전파

119뉴스팀 | 입력 : 2019/04/23 [16:00]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20일 오전 4시 57분께 관내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고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장실·세탁실 벽면에 설치된 화풍기 연결배선 절연열화에 의한 합선으로 전선피복에 착화·발화됐으나 최초 신고자의 빠른 대처로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화재조사주임은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며 “평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으며 이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로 지정돼 있다.

**FLIR K2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제품 문의



## 서대문소방서, 보이는 소화기 이용 화재 진압

119뉴스팀 | 입력 : 2019/04/05 (12:30)



서대문소방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3일 밤 12시 서대문구 증정로6안길 소재에서 발생한 불을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 건물 외부에 쌓인 재활용품용 종이박스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인근 주민이 보이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다.



소방서는 화재 발생 요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주민 누구나가 화재를 발견하면 누구나 손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대문소방서, 보이는 소화기로 화재 진압

119뉴스팀 | | 입력 : 2015/04/17 (14:00)



서대문소방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6분 청산로17길 5 도로상 전신주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대학교 외벽 화단 주변에 옮겨 붙어 잔디와 나무로 진행됐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과 대학교 관계자가 이를 보고 주변에 있던 보이는 소화기 등으로 초기 소화를 시도해 화재 확대를 막았다.



소방서는 시민이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통행이 불편한 주택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119뉴스팀 [119news@fon119.co.kr](mailto:119news@fon119.co.kr)